

壬辰倭亂 전후 慶尙右道의 군사적 상황

金 康 植*

The military Situations in Kyoungsang-uhdo(慶尙右道) about the Tim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壬辰倭亂)

Kang-Sik Kim

I. 머 리 말

1592~98년에 전개되었던 壬辰倭亂은 역사상 많은 영향을 끼친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의 발발 요인은 복합적이지만,¹⁾ 전쟁의 최대 피해국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임진왜란은 건국 후 200여 년 만에 발생했던 민족의 수난기였으며, 사회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임진왜란은 승전도 패전도 아닌 미증유의 國難이었을 뿐이다. 이에 전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였다.²⁾ 이러한 전쟁 극복을 위한 기반은 16세기의 사회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16세기의 군사적 상황이 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지금까지 16세기의 군사적 상황에 대한 연구는 의병운동의 배경 문제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를 분석해 보면, 주로 관군의 패배 요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군의 패배 요인으로는 지배계급의 분열로 인사와 정책에서 문란이 발생하여 중앙정부의 행정이 민과 유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사적인 견해와,³⁾ 지방 군현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조세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에서 찾는 사회경제적인 견해로⁴⁾ 나눌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16세기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임진왜란 전의 사회경제적 변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즉 조선 전기의 사회는 16세기에 들어와 정치사적으로는 지배세력인 勳戚과 士林의 대립, 사상사적으로는 성리학의 체계적인 이해와 확대, 경제적으로는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사

- 1) 임진왜란의 원인은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정치사적인 측면의 영토확장설과 경제사적인 입장의 무역전쟁설이다. 그러나 韓祐勳은 절충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韓祐勳, 1962 <壬辰亂 原因에 關한 檢討-豊臣秀吉의 전쟁 도발 원인에 대하여-> <역사학보>).
- 2) 한때 우리 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을 패배가 아닌 승리를 거두었다는 戰勝史觀의 입장에서 연구하였다. 한편 임진왜란의 성격에 대해서는 임진왜란을 전쟁으로 보려는 일본측 입장, 난으로 불리는 한국측 입장, 원군으로 불리는 명나라의 입장이 있다.
- 3) 崔永禧, 1957 <壬辰丁酉亂時 沿海民의 動態> <史叢> 2, 高麗大 史學會.
- 4) 金潤坤, 1971 <壬辰亂 勃發 直前의 地方郡縣 實態> <柳洪烈博士 華甲紀念史學論叢> 동간행위원회.

지주제와 유통경제의 발달, 사회적으로는 부의 집중화와 유이민의 발생이 나타났다. 이처럼 16세기에는 조선 전기의 收租權을 중심으로 한 토지제도가 소멸되고 지주제가 발달하였으며,⁵⁾ 지주층에 의한 토지 집적이 가속화되었다.⁶⁾ 貢納制에서는 防納과 代納이 일반화되었으며,⁷⁾ 軍役制에서는 奉足制가 붕괴되면서 代立이 나타났다.⁸⁾ 한편 농업생산력의 발달로 농민의 경제적 생활은 향상되었지만, 수취체제상의 문란으로 각종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농민들은 도망·유리하였으며,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16세기에 나타난 농민들의 저항은 이런 배경을 토대로 전개되었으며,⁹⁾ 임진왜란은 이러한 과도기적인 사회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발발하였다고 파악되었다. 즉 16세기가 조선사회에서 차지하는 변화와 의미를 강조한 입장이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임진왜란시 경상우도의 군사적 상황은 아직 전쟁사 분야를 제외하면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임진왜란 극복의 동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병운동 발생의 배경 문제를 연구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적인 사례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연구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다.

먼저 경상우도의 군사체제와 군역제도의 변화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군사체제의 변화이다. 조선 전기의 鎭管體制가 制勝方略體制로 바뀌었지만, 제승방략체제는 전면전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임진왜란과 같은 전면전에서는 효과적일 수 없었다. 둘째, 군역제도의 변화상이다. 16세기의 軍役制는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노동집약적 영농방식을 추구하던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代納과 納布制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番價가 과중한 것이 문제였으며, 경상우도는 上藩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였다. 아울러 부담이 컸던 水軍이 많았던 점도 경상우도의 모순을 가중시켰다.

다음으로 임진왜란시 경상우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상우도는 일본군의 호남 진출을 차단시키고, 일본군의 전력을 분산시킨 점에서 중요하다. 아울러 경상우도의 의병운동은 낙동강 수로를 확보하여 일본군의 군량 운송을 막아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낙동강 수로의 확보는 경상우도 의병장들의 경상우도에 대한 인식과 분산적 전투를 통해서 가능하였다. 한편 일본군의 계속된 주둔은 임진왜란시 경상우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말해주며, 경상우도 민들이 임진왜란중 계속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 임진왜란 이전의 경상우도에서는 16세기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여러 대비책이 오히려 민을 유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민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反官的이었으며, 일본군에 가담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나 결국 민들은 반관적이기보다는 반침략적인 입장을 우선시하면서 의병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 또한 16세기의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 5) 李景植, 1986 <朝鮮前期土地制度史研究> 一潮閣.
- 6) 李景植, 1976 <16세기地主層의動向> <歷史教育> 19
李泰鎮, 1983 <16세기沿海地域의 墾田開發-勳臣政治의 經濟的背景 일단-> <金哲垓博士 華甲紀念史學論叢>; 1986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 7) 高錫珪, 1985 <16·17세기 貢納制 改革의 方向> <韓國史論> 12, 서울대 국사학과
이지원, 1990 <16·17세기 전반기 貢物 防納의 構造와 流通經濟의 性格> <李載樂博士 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동간행위원회
박현순, 1997 <16~17세기 공납제 운영의 변화> <韓國史論> 38, 서울대 국사학과.
- 8) 李泰鎮, 1968 <軍役의 變質과 納布制의 實施>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尹用出, 1989 <壬辰倭亂時期 軍役制의 動搖와 改編> <釜大史學> 13.
- 9) 高承濟, 1980 <16世紀 賤民叛亂의 社會經濟的 背景> <學術院論文集> 19
矢澤康祐, 1981 <林巨正의 反亂과 그 社會的 背景> <傳統時代의 民衆運動> 상, 풀빛.

Ⅱ. 임진왜란 이전의 慶尙右道 군사체계

임진왜란 전 경상우도의 군사체계에서는 조선 전기 전략체계의 변화와 군역 자원의 확보란 측면에서 진행된 군사적 방어체계의 붕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임진왜란 직전의 경상우도의 군사체계는 전국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방어체계는 鎭管體制에서 乙卯倭變 이후 制勝方略體制로 전환되었다. 지역방위를 중시하였던 진관체제는 세조 연간에 거의 정비되었다. 경상도의 진관체제를 살펴보면, 경상도의 경우 내륙지방과 연해지방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우도는 상주, 진주, 김해 진관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러한 진관체제의 특징은 군사방어 조직이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경상도에서는 행정구역의 변동과 상관없이 좌도와 우도의 지리적 조건을 중시하여 군사제도와 조직이 마련되었다. 조선 초기 진관체제시의 경상도의 군사체계는 아래 <表 1>과 같다. <表 1>에서 보면, 경상도는 육군과 수군의 경우 각각 좌·우도로 나누어 편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경상도의 전략적 위치를 말해 주는 것이다.

<表 1> 경상도의 鎭管體制¹⁰⁾

직책	관할 구역	소재지	관할 진관	관할 지역
관찰사	경상도 전역	상주		경상도 전역
좌병사	경상좌도	울산	경주진관	울산 양산 영천 흥해 청하 영일 장기 기장 동래 언양
			안동진관	영해 청송 예천 영천 풍기 의성 봉화 진보 군위 비안 예안 영덕 용궁
			대구진관	밀양 청도 경산 하양 인동 현풍 의흥 신녕 영산 창녕
우병사	경상우도	창원	상주진관	성주 선산 김산 개령 지혜 고령 문경 함창
			진주진관	합천 초계 함양 곤양 거창 사천 남해 삼가 의령 하동 산음 안음 단성
			김해진관	창원 함안 거제 칠원 고성 용천
좌수사	경상좌도	동래	부산포진관	두모포 감포 해운포 칠포 포이포 오포 서생포 다대포 염포 축산포
우수사	경상우도	거제	제포진관	육포 평산포 지세포 영동포 사랑 당포 구조라 적량 안골포

그렇다면 이러한 진관체제가 制勝方略體制로 바뀐 이유와 제승방략체제가 임진왜란시 초래한 군사전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조선 전기의 軍政 면에서는 방어체제의 변화가 있었다. 조선 전기의 방위체제는 전시와 평화시를 막론하고 鎭管體制에 의해 지방군이 국방을 담당하는 체제였다.¹¹⁾ 그러나 放軍收布와 代立현상이 나타나자 군사수의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면보다는 현실적 군사운영방식인 제승방략체제를 도입하였다. 사실 制勝方略體制는 布納化로 인하여 군사수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현실적 군사체제였다. 그러나 제승방략체제는 종전의 鎭管別로 하던 自戰自守의 원칙을 포기하고 가용병력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체제였기 때문에 戰線이 무너지면 후방이 일시에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¹²⁾

전국적인 변화 속에 경상도에서도 국가방어 체제의 개편과 함께 조선 전기의 鎭管體制가 制勝方略體制로 변화하였지만,¹³⁾ 제승방략체제는 지방의 군사를 특정한 곳으로 모으고 중앙의 京將을 기다려

10) 《經國大典》 권 4, 兵典에 나타난 편제이다. 이후 수군의 경우 일본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종 연간에 부산포진관, 가덕진관, 미조항진관으로 개편·강화되었다.

11) 조선 초기 경상도에는 金海 大丘 尙州 慶州 安東 淸州 등 6개 鎭管이 있었다. 진관체제는 전국의 행정조직 단위를 군사조직인 진으로 편성하여 나누고, 각 수령들로 하여금 군사 지휘관의 임무를 겸하게 하여 巨鎭을 중심으로 自戰自守하게 한 방어체제였다.

12) 제승방략 체제는 제승방략의 분군법이 정확한 표현이다.

13) 許善道, 1973·74 <制勝方略 研究> <農壇學報> 36·37 참조.

야 하였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있었다.¹⁴⁾ 특히 柳成龍은 계승방략이 경상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임진왜란 전에 시정되지 못하였으니,

계승방략은 한 때의 分軍했던 것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간혹 병사와 수사가 패전하여 職에서 물러나기도 하였으므로 방어사로 대신하게 했던 것이지 아주 정해진 제도는 아니었다. 서북방면에는 분군법이 있으므로 또한 계승방략이라 하였지만, 영남에서와 같이 마냥 京將을 기다리는 폐단은 없었다.¹⁵⁾

라고 하였다. 즉 柳成龍은 계승방략이 여진 토벌 같은 국지전에서는 이미 분군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가능했지만, 영남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임진왜란시 일본과의 전면전에서 계승방략체제로 인하여 폐해를 제일 먼저 당한 곳은 경상도였다.

둘째, 진관체제가 계승방략체제로 변경된 것은 軍役制의 변동으로 인한 군사수의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경상도는 종래 김해, 대구, 상주, 안동, 진주 등 6개의 진관이 적과 대치하고 있어 한 진이 무너지면 다른 진이 대신하여 싸움으로써 일시적인 붕괴의 위험이 적었다. 즉 조선 전기 방어의 실체는 전시와 평상시를 막론하고 진관체제하의 지방군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방 수령들의 부패로 放軍收布와 代役納布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士林들은 納布制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정되지 못하고 宣祖 때에 이르면 군사는 편제상에만 존재하고 실병력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계승방략체제는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되었다.

이에 乙卯倭變 이후 鐵管體制의 모순을 해결하고 적을 초기에 제압하기 위해서 도입된 制勝方略體制는 경상우도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계승방략체제는 소규모의 국지전에서는 유리하였지만, 전면전에는 부적합하였다. 이런 사실은 이미 柳成龍이

군정을 다스림에는 대강령과 절목이 있으니, (중략) 조정의 원대한 계획이 이와 같이 자세한 데도 중세 이후로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일체 폐지되었고, 또 가벼운 생각과 얕은 꾀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 뜻대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내어 계승방략이라 이름하였는데, 당초 을묘왜변을 당하자 이러한 일시의 구급책을 마련한 것이니, 이것은 겨우 소소한 적을 상대할 수는 있어도 대적을 제압할 방략은 못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¹⁶⁾

라고 지적하였다. 즉 制勝方略은 군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왜변과 같은 소규모 전투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전국적인 방어체계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임진왜란 초기에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처음에 경상감사 金晬가 왜란의 소식을 듣고 각 고을에 통첩을 보내어 군대를 인솔하고 대구로 모이도록 함에 각 수령들이 군대를 이끌고 모였으나, 서울에서 순변사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에 일본군이 침입해 오자, 싸움 한 번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고¹⁷⁾ 한다.

셋째,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군정상의 문란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병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

경상도 병영의 군사가 난을 일으켰는데 맨 먼저 선동한 자를 주살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處侯 申璽이 군기를 정비하면서 엄하고 가혹하게 독촉하였다. 군사들이 분노하여 밤중에 성문을 열고 진을 치고서 난을 일으키려 하니, 申璽이 몸소 사과한 뒤에야 곧 해산하였다. 그런데 경상절도사 郭麟이 맨 먼저 선동한 자를 체포하여 수감한 다음 계문하니, 왕이 크게 놀라서 맨 먼저 선동한 자를 참수하여 효시해서 군중에 위엄을 보이도록 하였는데, 申璽 역시 죄에 걸렸다. 이때에 무장들이 말하기를 '鐵의 군사들이 진장에

14) 대표적인 논란은 宣祖 24년 10월 계사에 있었던 備邊司 회의에서 柳成龍이 制勝方略의 폐단을 들어 폐지를 주장했으나, 慶尙監司 金晬가 制勝方略이 시행된 지가 오래되어 바꿀 수가 없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 4월).

15) 《선조수정실록》 권 25, 24년 10월.

16) 《선조실록》 권 49, 27년 3월 정미.

17)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 4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밖에서 진을 치고 항의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지금 발각되어 맨 먼저 선동한 자가 죽임을 당했으니, 죽음은 바로 命이다.¹⁸⁾

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병란에 따른 조정의 처벌에 대한 무신들의 평인데, 군사들이 장수에게 감정이 좋지 않으면 항의하는 것이 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군령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던 사정을 말해 주는 것으로 군기가 문란하였던 현실을 대변해 준다.

다음으로 임진왜란 전 군사체계의 붕괴는 군역자원의 문란, 즉 군사수의 감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조선 전기 전국의 군역자원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¹⁹⁾

<表 2> 조선 전기 전국의 군사수 변화²⁰⁾

구분 \ 군별	正 軍	雜 軍	奉 足
1477	134,970		332,746
1509	177,322	123,958	
1523	186,091	125,074	
1525	186,691	125,074	
임란 전	145,620	53,787	

위의 <表 2>에서 살펴보면, 조선 전기 전국의 군사수는 성종 연간에 50만의 군역자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종·세조대의 꾸준한 군역자원의 증가 때문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良人皆兵制에 따라 良人 이상은 군역부과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정군 1명에 봉족 3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군사수는 1509년 301,280명이었다가 임진왜란 직전에는 199,407명으로 축소되었다.²¹⁾ 이는 우선 15세기의 保法 軍役制가 正軍에 획정된 保人の 감소와 가중된 요역의 부담으로 保法の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노비로의 투탁, 僧徒의 징발, 官屬으로 充差 등으로 군역체의 변경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代役·納布와 放軍收布가 실시되었지만,²²⁾ 오히려 番價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민들의 유리·도망으로 군역자원은 더욱 축소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전체 군액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에 番價의 징수를 위해 族徵과 隣徵이 적용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군역체는 붕괴 직전에 있었다.

이제 전국적인 군역자원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경상우도 군역자원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경상우도의 正軍數는²³⁾ 1454년에 11,408명이었다. 그 중에서 營鎮軍은 1,323명뿐이며, 船軍이 8,33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를 경상우도와 좌도로 비교하면,²⁴⁾ 경상좌도와 우도의 군사수는 1454년의 경우 11,287명과 11,154명으로 전체 22,441명이었다. 이처럼 경상좌도와 우도의 군사수는 거의 비슷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 경상도의 군역 자원의 변화를 제시하면 <表 3>과 같다.

18) <선조수정실록> 권 12, 11년 4월.

19) 충청도의 군역 자원의 변화에 대해서는 金鍊鳳 외, 1981 <朝鮮時代 軍役資源의變動에 대한 研究-湖西地方의 경우를 中心으로-> <湖西文化研究> 3 참조.

20) <중종실록> 권 10, 4년 12월 정사; 권 49, 18년 12월 을축; 권 54, 20년 6월 신축.

21) <선조실록> 권 28, 27년 4월 기유.

22) 李泰鎮, 1968 <軍役의 變質과 納布制의 實施>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尹用出, 1989 <壬辰倭亂 時期 軍役制의 動搖와 改編> <釜大史學> 13 참조.

23) <世宗實錄> 地理志의 경상도 軍額을 추출한 것임.

24) <世宗實錄> 地理志에서 추출·비교한 것임.

<表 3> 경상도의 군사수 변화²⁵⁾

시 기	군사수		
	正 軍	奉 足	합 계
1477	35,517	94,810	130,327
1512	8,000		10여 만(실제 2만)
宣祖 초기	7만(丁戶)	20여 만(率丁)	

<표 3>을 분석해 보면, 1477년에 경상도의 군사수는 正軍 35,517명에 奉足 94,810명이었다.²⁶⁾ 이후 중종 연간에는 10여 만의 군사 중 2만여 명만 실제 파악되고 있었다. 이것을 당시 방어해야 할 33개 소에 3교대로 나누어 보면 1개소에 겨우 100명씩만 할당되었지만,²⁷⁾ 실제 군사는 8천여 명뿐이었다.²⁸⁾ 한편 宣祖 초년 경상도의 군사수는 正戶 7만, 率丁 20여 만으로 파악되었지만,²⁹⁾ 문제는 이 숫자의 대부분이 허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임진왜란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군사수는 여전히 많다고 파악되었지만, 허수가 늘어만 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처럼 임진왜란 발발 직전까지 문제가 된 것은 군역의 허위 숫자였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金字顯이 아뢰기를,

오늘날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은 다만 헛된 액수가 많기를 힘쓰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의 군역을 채우기를 힘써서 軍丁이 다 충실하게 되면, 백성의 힘이 펴지고 유망했던 사람도 점점 돌아올 것이니, 액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늘어날 것입니다. 헛된 액수를 채우기만을 힘쓰고 충실되지 않게 한다면, 이들이 유망하여 그 해가 일족과 이웃에게 미쳐 백성이 모두 있을 곳을 잃는 유민이 될 것이니, 그렇다면 액수를 늘인다는 것이 곧 줄이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계속년 이래 수십년 동안 백성의 큰 걱정거리가 된 것이니, 이제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³⁰⁾

라고 하였다. 즉 軍額에서 과다하게 파악된 군역을 메우기 위해 허수의 징수가 일족과 이웃에 미치게 되고, 그것이 유민의 발생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면 군역이 충실해지고 민이 정착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우옹의 지적은 사회적 실상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군역제의 폐단은 15세기의 保法에 의한 軍役制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변동한 데서 비롯되었다. 중종 때부터 경상도에서는 水軍, 步軍, 選上, 其人的 폐단이 지적되었다.³¹⁾ 이는 구체적으로 軍役制에서 奉足の 도망으로 이웃에 징수하는 폐단, 軍額의 허수와, 노비제와 身役 문제에서 選上 값이나 其人 값의 과중을 말한 것이다. 특히 군역제에서는 수군과 보군의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경상도의 경우 잦은 왜변으로 인한 일본의 노략질로 수군이 많이 설정되어 부담이 더하였다.

이에 지금까지의 軍戶 편성에 입각한 正軍·奉足の 軍役 징발체제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차츰 番價를 징수하는 收布制로 이행되어 갔는데,³²⁾ 이는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먼저 중앙군의 경우는

25) <조선왕조실록>의 경상도 군사수를 시기별로 발췌한 것임.

26) <성종실록> 권 81, 8년 6월 을묘.

27) <중종실록> 권 15, 7년 2월 23일 경주 부윤 李繼福의 상소. 한편 1514년에도 경상도의 군사수는 2만으로 여겨졌다(<중종실록> 권 21, 9년 10월 임인).

28) <중종실록> 권 13, 6년 2월 26일 정미.

29) <선조실록> 권 142, 34년 10월 계미, 李德馨의 상소문.

30) <선조실록> 권 7, 6년 11월 임인; <선조수정실록> 권 7, 6년 9월.

31) <중종실록> 권 4, 2년 11월 신유.

32) 陸軍本部, 1968 <近世朝鮮前期 軍事制度의 動搖>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참조.

16세기 초에 番上正兵의 役卒化가 진행되면서 役의 무거움으로 雇價代立하는 代立制가 발생하였으며, 직업적인 代立人까지 등장하였다. 이후 納布의 관행이 성행하여 증중대에는 上番軍의 番價代納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軍役의 納布가 군사제도의 虛設化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지방 軍營에서도 靑을 같이 하여 留防軍에 대한 放軍收布制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경상도 관찰사 宋千禧의 보고에 따르면, 경상우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좌도에서는 무명 반 필의 값이 쌀 7~8되요, 우도에서는 겨우 한 말이었는데, 赴防하는 군사들이 모두 무명으로 쌀을 바꾸었기 때문에 남방 백성들의 식량이 더욱 모자라게 되었다고³³⁾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軍役 대신에 布를 대신 내는 것이 지방군에서도 일반화되었으며,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立役을 면제시키고 布를 거두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런데 軍役에서의 收布制는 16세기 상품유통경제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문제는 吏胥의 作弊에 의해 사적으로 授受되는 代立價가 폭등하여 실제 농민층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수준으로 부과되어 농민들이 避役과 도망의 방식으로 저항하였다는 점이다. 즉 番價의 과중이 문제였으며, 이로 인하여 軍戶의 파괴를 초래하였는데, 경상우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상우도 절도사 尹熙平이 拜辭할 때 군사들이 赴防하지 아니하고 關防하게 되니 이를 시정하게 하였다고 한다. 특히 당시 史臣의 평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탐하는 풍조가 크게 유행되어 僉使 萬戶된 자가 군민을 침탈하여 綿布를 얻기에만 힘쓰고 방어는 餘事로 삼으므로, 군민이 지탱하기 어려워 한 번 立役을 하게 되면 그 田地를 모두 팔아야 하고, 두 번 立役하게 되면 가산을 모두 팔고 마침내 떠돌게 되니, 關防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³⁴⁾

라고 하였다. 즉 軍官이 방어보다는 布를 얻기에 주력하였으며, 이에 민들은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유민화되었다.

한편 軍額은 허수로 과다하게 파악되었지만, 실제 軍額은 계속 축소되어 나갔으며 軍籍은 虛簿로 전락하였다. 이 때문에 番價는 계속 높아졌으며, 호적상의 인구는 감소되었다. 이에 番價의 가중이 유망의 요인이 되었다. 獻納 鄭萬鍾이

요사이 백성의 원망과 고통이 한 가지 일이 아닌데, 군사들을 보면 그런 고통이 더욱 심합니다. 步兵의 正兵은 자기 자신이 兵力을 치르는 사람이 적고 거개가 대가를 주어 대신 세우고, 承政院의 使令도 모두 보병으로 정하는데, 대신 세울 때의 값을 따로 관에서 금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수가 없이 배나 받아, 두 달 番價가 무명 2同이나 됩니다. 외방의 가난하고 잔악한 백성들이 한꺼번에 수효대로 마련해서 내지 못해 추후에 마련해 주기로 약정하는데, 고향에 돌아와 전답을 모두 팔아도 오히려 충당하지 못하므로 이 때문에 도망하여 흩어져 버립니다.³⁵⁾

라고 하였다. 즉 한 달에 두 번 서는 番價가 무명 2同이나 되었다. 이에 군정이 모자라는 이유로 番價가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었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허사였다. 사실 조선 전기 1朔의 番價는 50匹에서 100匹로 유동이 심하였다.³⁶⁾ 때문에 이러한 番價의 고통은 백성의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 예로 步兵의 경우 한 번 드는 番價가 배 3동이나 되었지만,³⁷⁾ 시정되지 않아 유민이 발생하고, 族徵·隣徵의 폐단이 행해졌

33) 《중종실록》 권 13, 6년 2월 기유.

34) 《중종실록》 권 20, 9년 2월 계축.

35) 《중종실록》 권 62, 23년 8월 계축.

36) 《중종실록》 권 62, 23년 8월 계축; 권 81, 31년 정월 정유.

37) 《중종실록》 권 85, 32년 10월 정묘.

다고³⁸⁾ 하였다.

이런 유망의 폐해는 인구수의 감소로 파악되었다. 실제 경상도의 경우 군역 징수의 폐단으로 인구 감소가 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나머지 백성들이 군역의 징수를 부담하게 되자 장정의 숫자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中宗 연간에는 인구의 3분의 1~2분이 없어졌다고³⁹⁾ 하였다. 이에 각종의 원인 규명이 있었다. 경상도의 경우 천인이 많고 양인이 적으며, 양인 가운데 다른 役事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漢城左尹 李繼福은

경상도는 큰 도인데도 군대의 정원은 겨우 2만 명이니, 그것은 천인이 많고 양인이 적으며, 또 양인 가운데 다른 役事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주 한 고을만 살펴보아도, 수륙군의 正兵과 保丁을 모두 합쳐야 9천 명인데, 公賤은 1만 7천 5백여 명이나 되며 私賤은 반드시 이보다 많을 것입니다. 9천 명의 정원도 또한 실제 수효는 아닙니다.⁴⁰⁾

라고 하였다. 즉 경상도의 경우 군사수가 적은 것은 천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이는 중세 봉건사회의 신분제하에서 경상도의 양반 숫자가 많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군역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우도에서는 여러 대책이 마련되었다.

첫째, 土豪들이 감춘 良人을 찾아내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경상도는 땅이 넓고 사람이 많기가 다른 도보다 배가 되는데, 허다히 모자라는 군역을 보충할 길이 없는 것은 오로지 고을의 토호들이 많은 수의 양민들을 외람되게 점유하여 속임수로 숨겨 놓고 부려먹는데도 수령들이 인정에 끌려 감히 규명하여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다고⁴¹⁾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토호들이 은닉한 양인의 숫자를 찾아낸 것이었다.

한편 당시의 재지세력들은 留鄕所를 통하여 향촌사회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役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晉州의 경우 李濟臣이 부임하여 役을 공평하게 부과하려 하자, 進士 品官 庶孽 將校 등이 모의하여 兵符를 훔쳐 役을 면제받으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물론 병부를 훔치려 한 진사 등은 처벌받았지만, 진주에는 조정과 관계를 맺고 있던 儒士가 많아 목사가 지위를 내놓기도 하였다.⁴²⁾ 이처럼 재지세력들은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역을 면제받으려 했다.

둘째, 閑丁을 찾아내어 모자라는 군역을 보충하였다. 즉 경상도의 인구가 매우 많기는 하나 도망하여 絶戶가 된 것이 자못 많으니, 한정을 찾아내어 모자라는 군역을 보충해야 한다고⁴³⁾ 지적되었다. 이는 도망한 사람을 찾아내어 군역을 부과하는 방법이었다.

마지막으로 군사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였지만, 경상우도의 특수한 사정이기도 하였다. 그런 측면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를 군사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즉 군인을 사사로이 집짓기나 堤堰의 축조에 이용하는 경우였다. 한 예로 자신의 집을 짓는데 군사를 이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李忠傑은 일찍이 경상우도 절도사가 되었을 때 營軍과 진양과 곤양의 군사를 이용하여 진주에 집을 지었는데, 그 후에 物論이 일어나자 그제야 거짓 꾸며서 말하기를, '사위의 집이다' 라고 하였다고⁴⁴⁾ 한다. 또 수군을 私堰의 공사에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浦軍 30명을 水使 金鐵壽의 청으로 의령의 鄭士

38) <중종실록> 권 97, 37년 1월 계사.

39) <중종실록> 권 24, 11년 3월 무신.

40) <중종실록> 권 21, 9년 10월 임인.

41) <중종실록> 권 33, 13년 5월 병인; 권 103, 39년 5월 계해; <명종실록> 권 13, 7년 7월 경자.

42) <선조실록> 권 12, 11년 7월 정묘; <선조수정실록> 권 12, 11년 11월.

43) <중종실록> 권 103, 39년 5월 계해.

44) <중종실록> 권 5, 3년 1월 갑인.

龍에게 보내어 海澤을 방축시킨 경우도 있었다.⁴⁵⁾

둘째, 수군을 관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상우도 함안의 경우 경상도 관찰사 宋純의 장계를 살펴보면, 함안 군수 姜詮은 수군 李升蕃을 억지로 官屬으로 만들었고, 燒酒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 일가족 20명을 가두었다고⁴⁶⁾ 한다.

셋째, 군사 운영에서의 문제는 番上의 거리가 먼 고통이었다. 修撰 鄭士龍이 아뢰기를,

신이 근친하려고 경상도에 갔다가 방수하는 군사에 관하여 들으니, 아주 먼 곳에서 방수하는 군사들은 쉬는 기일이 없어, 번드는 날은 많고 번에서 나오는 날은 적으므로 고통이 막심하다 합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모두 그 사정을 알겠습니까. 방어하는 일은 늦출 수 없으나, 西北에 사변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남쪽에서 징집을 해야 할 것이니, 그 번드는 일을 줄여서 쉬 수 있도록 함이 어떠하리까.⁴⁷⁾

라고 하였다. 이처럼 실제 番上하는 기간과 番上하는 일수가 경상도의 군사는 많았는데, 이는 남방에서 북방까지 番上하러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조선 전기 군사제도의 운영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인 때문에 경상도에서도 군사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군사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인 경상도의 군역자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의 <表 3>과 같다. 조선 전기 군역 자원의 시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경상좌도 언양의 경우 군역자원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경상우도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제점은 군액의 원수와 실제수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것인데, 군액이 감소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민의 도망 때문이었다.⁴⁸⁾

군사수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경상좌도 彦陽縣의 경우, 1454년 侍衛軍 7명, 營鎮軍 44명, 船軍 156명으로 207명의 군사가 있었는데,⁴⁹⁾ 1567년 元戶 249호에 元定 996명이었으나 실제 507명밖에 없었다.⁵⁰⁾ 이와 같이 군액이 1/2로 줄어들고 있었던 것은 국지적인 현상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었다.⁵¹⁾ 이처럼 지방 군현의 호구와 군액이 감소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도망자의 刷還을 강행하였지만, 宣祖代로 내려갈수록 軍籍은 허구화되어 나갔다.⁵²⁾ 경상우도의 함안과 진주의 경우도 비슷한 추이를

<表 4> 15~16세기 咸安·晉州·彦陽의 군사수 변화⁵³⁾

시 기	지 역	군 사 수			
		待 衛 軍	營 鎮 軍	船 軍	합 계
	함 안	64	76	370	510
1454	진 주	174	188	975	1,337
	언 양	7	4	156	207
1537	언 양				996 (507)

45) 《중종실록》 권 63, 23년 10월 정미.

46) 《중종실록》 권 94, 35년 12월 기미.

47) 《중종실록》 권 19, 8년 10월 을묘.

48) 軍丁에 충당해야 할 호구와 민정의 감소는 丹陽과 彦陽縣의 경우 物故(사망)와 逃亡 때문이었다고 한다(金潤坤, 1971 <앞의 논문> 참조).

49) 《世宗實錄》 地理志 참조.

50) 林薰, 《葛川集》 권 2, 彦陽陳弊疏 참조.

51) 《명종실록》 권 32, 21년 5월 임인.

52) 《선조실록》 권 17, 16년 2월 임인.

53) 《世宗實錄》 地理志, 《咸州誌》, 《晉陽誌》 참조.

보였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역의 부담이 많은 수군의 闕戶가 보병의 배가 되었으며,⁵⁴⁾ 심한 경우는 10명에 8~9명이 도망하여 버렸다고⁵⁵⁾ 한다. 이렇게 지방 군현의 호구와 군정이 감소하자 보충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농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군이 줄어든 이유로는 萬戶들의 횡포도 한 몫을 하였지만,⁵⁶⁾ 수군의 역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한 예로 경상도의 경우 수군의 군역이 힘들었기 때문에 수군들이 도망쳐 허술하게 된 것을 경상도 관찰사 張順純의 개진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였다.⁵⁷⁾ 이에 병조에서는 경상도의 沿邊 군사는 계속 머물러 방수하게 하고, 上道의 군사로써 京中에 입번하게 하였다.⁵⁸⁾ 더욱이 경상도 해안의 남해 거제 하동 사천 고성 진해 웅천 동래 기장 장기 등의 군사는 입번하는 것을 면제하여 土兵을 충실하도록 하였다.⁵⁹⁾

한편 조선 전기의 국방제도에서 문제가 된 것은 水軍의 과다 문제였다. 경상우도의 경우 해안 지역이 많아서 수군의 숫자가 많았던 것이 이해되지만, 해당 지역을 지키는 營鎮軍, 육군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 이는 임진왜란시 陸戰에서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조선 전기의 국방체계가 북쪽의 여진 토벌과 남쪽의 왜구 토벌에만 맞추어 편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수군의 역이 육군보다 힘들었기 때문에 경상우도의 경우 더욱 고통스러웠다.

이상의 검토처럼 임진왜란 전 경상우도의 군사체계는 실제 군사수의 감소, 軍役制에서 代役制와 納布制의 실시, 군사체계상에서 진관체제의 제승방략체제로의 변화 등이 진행되었다. 임진왜란 직전 경상우도의 군사적 상황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조세 부담이 민에게 전가됨으로써 모순이 심화되었다. 때문에 官主導의 항쟁은 불가능한 형편이었으며, 의병운동이 반침략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Ⅲ. 임진왜란시 경상우도의 군사적 위치

임진왜란중 경상우도 지역이 갖는 지리적 위치와 전략적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경상우도는 임진왜란 전기간을 통하여 일본군의 최초 침입지이자, 후방의 보급 기지로서 일본군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⁶⁰⁾ 조선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은 적의 연락과 보급망을 차단하고, 회복의 근거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곳이었다. 때문에 경상우도는 치열한 격전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상우도의 주요 의병장들과 민들이 이 지역을 사수하는 데 진력하였다는⁶¹⁾ 사실은 전쟁사적으로 의의가 크다.

사실 임진왜란시 일본군의 점령은 우리 나라의 중요 거점만을 연계하는 점선점령에 불과하였을 뿐이지 결코 전면점령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은 승패를 떠나 일본군에게 후방기지 사수를 위한 수비병의 증강을 요구하게 만들었으며, 전후방의 연락두절과 생활필수품의 보급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54) <중종실록> 권 88, 33년 9월 경자; <명종실록> 권 9, 4년 3월 계유.

55) <중종실록> 권 97, 37년 1월 계사.

56) <명종실록> 권 16, 9년 4월 정유.

57) <중종실록> 권 1, 1년 10월 경신.

58) <중종실록> 권 7, 4년 2월 병인.

59) <중종실록> 권 11, 5년 6월 기유.

60) 許善道, 1983 <壬辰倭亂의 克服과 橫右義兵- 그 戰略的 意義를 中心으로-> <晉州文化> 4, 晉州教育大學 참조.

61)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시 경상우도 3대 의병장이었던 의령의 郭再祐, 함천의 鄭仁弘, 거창의 金沔의 활약과 李澍 등 40여 명의 의병장이 경상우도 출신이었다.

임진왜란시 경상우도의 군사적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임진왜란시 경상우도의 요충이 갖는 의미는 일본군의 호남 진출을 지연시킨 점이다. 육상운송법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에 일본군의 전략은 해로를 통해 군수물자를 원거리 운송하려는 것이었으나, 해전에서의 李舜臣의 승리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일본군은 후방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해 평양까지 진격한 후 더 북상하기가 곤란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이미 점령한 경상좌도를 기반으로 하여 우도를 점령하고 나아가 호남까지 차지하려고 서둘렀다.⁶³⁾ 이것이 임진왜란 개전 초기의 경상우도 지역의 양상이었다. 이런 점에서 경상우도의 미점령지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당시에 경상우도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킬려는 인식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은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첫째, 경상우도 招諭使로서 의병을 기병시키고 관군과 의병의 상충된 입장을 조정한 초유사 金誠一의 인식이다. 이것은 관의 입장에서 경상우도 지역을 중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처음 晉州城에 도착한 6월의 馳啓에서

신이 보건대 진주는 남쪽 지방의 거진으로 양도의 요충지에 위치하였으니, 이곳을 지키지 못하면 이 일대에 보존된 여러 고을이 토봉 와해되어 朝夕을 보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이 반드시 호남을 침범할 것입니다.⁶⁴⁾

라고 하였다. 즉 진주가 경상우도의 방어가점이며, 곡창 호남을 지키기 위한 요충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金誠一은 진주는 호남의 保障이므로 진주가 없으면 호남이 있을 수 없고 호남이 없으면 나라는 그만이라는⁶⁴⁾ 적극적인 인식을 보였다.

둘째, 지방 사족들의 입장이다.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의 유지를 위해 자신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였다. 여기서도 이들이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1592년 8월에 조정에서 金誠一을 경상좌도 감사로 이임시키려는 명령을 듣고, 이를 만류하는 疏를 올린 경상우도 儒生 鄭惟明의 글을 들 수 있다.⁶⁵⁾ 경상우도는 경상좌도와 전라도 사이에 끼여 있어 일본군이 노략질하고자 하지만,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초유사가 士民의 마음을 얻어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誠一이 있지 않음으로써 關防이 엄하지 못하면 곧 경상우도 여러 읍이 함락당할 것이며, 호남 50州도 위태로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비록 이것이 초유사 김성일의 유임을 바라는 형태로 자신들의 지역을 지키고자 한 것이지만, 이 지역을 중시한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 실제 전투과정에서도 경상우도를 중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의병장의 인식으로 주목된다. 金沔이 1592년 7월의 우척현전투를 하던 때의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金沔은 지혜의 일본군이 우척현을 넘으려 하자 居昌을 보전하지 못하면 곧 열 두엿 고을이 보전하기 어렵다 하고, 드디어 장수를 정하여 고령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거창의 군사를 데리고 지혜의 적을 방어하겠다고⁶⁶⁾ 하였다. 즉 일본군이 경상우도에서 전라도로 진출하는 요목을 적극적으로 사수하였다. 더욱이 의병장들은 이런 인식 위에서 경상우도의 방어를 위해서는 호남의 곡식을 이용해서라도 끝까지 방어하려는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즉 몇 고을의 군량은 오래지 않아 떨어질 것인데 호남은 보유량을 모

62) 처음에 일본은 安國寺 惠瓊 등이 의령을 지나 진주로 곧바로 진격하려 했으나, 郭再祐 군에 의해 좌절되자 우회로를 택해서라도 호남으로 진격하려 했다. 특히 8도 분군 이후 개령에 주둔한 毛利輝元의 군과 惠瓊의 별군, 小早川隆景의 군에 의해서 호남 진출이 즐기차게 계속되었다.

63) <선조실록> 권 29, 25년 6월 병진.

64) 李魯, <龍蛇日記> 참조.

65) <鶴峰先生文集> 권 4, 附錄, 慶尙右道 儒生願留疏.

66) <燃藜室記述> 권 17, 宣祖朝 故事本末 總論義兵.

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우도 일대는 바로 호남을 보호하는 지역입니다라고⁶⁷⁾ 金沔이 군량을 요청한 사실에 나타난다. 한편 鄭仁弘도 영남이 없으면 호남이 없다는⁶⁸⁾ 점을 강조하여 협력을 호소하였다.

아울러 1593년 2월에 근왕의 명령을 받고 金沔이 우도를 떠나려 하자 백성들의 우려를 대변하여 金沔의 유임을 간청한 호남의 어느 사족의 말을 대신하여 임금에게 올린 金誠一의 上狀에서도 경상우도를 중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라도 민의 입장에서 경상우도를 중시하고 있는 증거로 주목된다.

본도 의병대장 金沔은 적을 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니 (중략) 지금 호남 사람이 遠方으로부터 돌아왔다면서 말하기를 ‘조정 의物議가 이 의병장을 불러서 근왕시키려 한다’고 하므로, 이 장수는 기별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위로 가고자 합니다. (중략) 만약 본도가 함몰되면 호남은 차례로 병화를 입게 될 것이며, 호남이 지탱되지 못하면 국가의 회복 근거는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⁶⁹⁾

라고 하여 金沔을 유입시키고 있다. 이는 호남의 사족들이 지역방어를 위해 생존권 보호의 차원에서 먼저 경상우도를 지키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때문에 임진왜란시 전라도 지역의 의병들은 1차 진주성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지역적 결합도 원만히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군·관·민이 모두 경상우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이 지역을 사수하는 데 진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중 계속된 경상우도 지역민들의 바램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경상우도 민들의 일본군에 대한 저항은 생존의 차원에서 전개되었으므로 격렬할 수밖에 없었으며, 궁극적으로 전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여 호남을 침략할 수 있는 길을 살펴보면, 그것은 정상로와 우회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상로는 대략 세 코스가 있었다. 첫째는 창원·함안을 지나 鼎巖津에서 남강을 건너 의령·삼가·거창 방면을 거쳐 안음에서 육십령을 넘어서 熊峙로 나가거나, 거창에서 내려와 함양에서 八良峙를 넘어가는 길이다. 둘째는 창원·진주로 진출하여 단성·산음을 거쳐 함양에서 팔랑치를 넘어가거나, 함양에서 거창 쪽으로 접어들어 안음에서 육십령을 넘는 길이다. 셋째는 진주에서 평야지대를 따라 하동을 거쳐 섬진강을 건너 광양·구례로 가는 길이다. 다음으로 우회로는 영산·창녕에서 낙동강을 건너 초계·합천을 지나 거창으로 이르는 길, 창녕을 지나 적포에서 낙동강을 건너 합천·거창에 이르는 길, 더 북쪽으로 올라가 茂溪를 건너 고령·성주에서 거창으로 가는 길, 또는 지례에서 우척현을 넘어 거창에 이르는 길, 지례에서 부항현이나 대덕현을 넘어가는 길이다.

한마디로 영호남의 경계는 덕유산과 지리산으로 뿔은 소백산맥의 준령이었기 때문에 이를 넘나들 수 있는 목[關要]은 섬진강, 팔랑치, 육십령, 부항현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목에 도달할 수 있는 외곽의 요충이 의령의 정암진, 초계의 적포, 고령의 무계, 성주, 지례, 우척현 등이다. 때문에 낙동강의 주요 지점과 소백산맥은 주요 전적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시 일본군은 초기에 지름길이라 할 수 있는 세 길이 의령에서 郭再祐 군에게 막힌 이후 계속 鄭仁弘과 金沔 군에게 막히자, 그 뒤에는 우회로를 이용해서라도 호남으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우회로의 각 요충이 갖는 전략적 의의는 정상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다. 임진왜란시 실제 경상우도 의병들의 전투는 대부분 우회로의 요충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상우도와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의 요충을 지켜야만 했다. 이런 점에서 金誠一이 이곳에 주요

67) <松菴先生實記> 권 1, 答上金鶴峰誠一書.

68) <亂中雜錄> 권 2, 임진 8월 4일.

69) <鶴峰先生續集> 권 3, 請留義兵大將金沔狀 계사년 2월.

의병장을 배치시키고, 나아가 모집한 의병을 지원해 준 사실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⁷⁰⁾ 한편 불행중 다행으로 경상우도의 의병장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병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적의 후방 전선에 혼란을 야기하여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경상우도는 낙동강의 운송로 확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는 전쟁 지역이 북쪽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때문에 경상우도 의병장들의 활동은 낙동강 유역을 사수하는 데 전력하였다. 이것이 임진왜란시 경상우도 의병운동의 진정한 의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첫째, 郭再祐가 낙동강에 木杖을 설치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柳成龍은

임진·계사년에 적병이 배로써 군량과 군기를 운반하면서 거리낌없이 왕래하였으나 사람들은 강을 따라 장애물을 설치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郭再祐만이 江中 馬首院 등에 木杖을 설치하여 적의 배가 흘러내려올 때에 몽둥이에 막히면 이내 언덕 위에서 伏兵을 대기시켜 급히 쳐서 적의 배 40여 척을 잡았습니다.⁷¹⁾

라고 하였다. 이는 광재우가 낙동강에 木杖을 설치하여 선박의 왕래를 막은 것인데, 郭再祐의 지형을 이용한 뛰어난 전술이었다.⁷²⁾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전술로서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낙동강 수로를 장악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 金沔이 일본군의 노획물 운송을 막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金沔이

병력을 나누어 牛峴 馬嶺을 지키게 하고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高靈에 나가 진을 쳤다. 적이 강을 따라 내려온다는 것을 듣고 맞아 공격하여 드디어 배 두 척을 잡고 적 800여 명을 베었는데, 적의 선박에 실려 있는 것은 모두 內帑庫의 보물이었다.⁷³⁾

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金沔이 일본군의 전리품을 되찾은 것이지만, 의병들의 활약이 일본군의 낙동강 왕래를 막음으로써 그들의 왕래가 쉽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위의 두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낙동강 수로는 일본군이 우리 문화를 약탈해 가는 운송로로서의 역할도 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일본에서 오는 군수물자를 전방으로 보급하는 데 있었다. 사실 일본군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었다. 때문에 이를 막은 경상우도 의병장들의 공은 지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임진왜란시 일본군의 초기 침략 상황을 통해 경상우도의 대응과 상황을 살펴보자. 유럽으로부터 신무기인 鳥銃을 받아들여 군사를 훈련시키고, 築城術과 造船術을 연마하는 등 대륙침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일본군의 제1軍이 1592년 4월 13일 釜山에 침입해 들어오면서 임진왜란은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3路로 나누어 북상하였다. 제1軍은 4월 14일 釜山에 상륙하여 東萊를 거쳐 梁山 密陽 大丘 尙州 鳥嶺의 中路를, 제2軍은 19일 釜山을 거쳐 慶州 永川 安東 鳥嶺의 東路를, 제3軍은 같은 날 金海 竹島 부근으로 상륙하여 金海城을 공격하고 뒤이어 온 제4軍과 합류하여 昌原城을 공격하고 이어서 咸安 昌寧 金泉 秋風嶺 忠州 龍仁의 西路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서울까지 북상하여 5월 2일 서울을 점령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침략을 맞아 조선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군사적인 상

70) 許善道, 1976 <鶴峰先生과 壬辰義兵活動> <國譯 鶴峰集> 論考篇 참조.

71) <懲愆錄> 권 4, 慶尙道應行事宜啓 올미 정월.

72) 金潤坤, 1967 <郭再祐의 義兵活動-특히 組織의 過程과 戰術·戰略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33 참조.

73) <燃藜室記述> 宣祖朝 故事本末 金沔條.

황의 모순 때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경상우도의 경우 官軍의 패주로 나타났다. 임진왜란 초기에 釜山鎭 東萊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支離滅裂되고 말아 항전다운 항전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형편이었다. 물론 이것은 난전의 民의 離反현상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너무나 무기력한 것이었다.

이런 사정을 慶尙道 지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시 일본군이 4월 13일 釜山에 상륙한 이후, 4월 14일 東萊가 함락되었으며 釜山僉使 鄭撥과 동래부사 宋象賢은 이때 殉節하였다. 이에 慶尙監司 金晬는 東萊로 향하다 도중에 적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慶尙右道로 퇴각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각 고을에 격문을 보내어 일본군을 피하라고 하였는데, 이로부터 도내가 텅비어 적의 침입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가 없었다고⁷⁴⁾ 하니 그 아래의 지방관들이야 어찌하겠는가. 특히 慶尙左兵使 李珥은 蔚山에서 東萊城에 원군하러 왔다가 싸우지 않고 도망하였으며, 慶尙右兵使 曹大坤은 연로하여 武官職에 부적격하다고 평가되었던 인물로⁷⁵⁾ 도망만 하다가 熊川에서 참패 당했다. 나머지 邊將이나 守令들도 모두 참패하고 물러남에 김해 양산 울산 언양이 연이어 함락되고, 그 후 18일에는 밀양이 함락 당했다.

더군다나 임진왜란 발생 초기에 도내의 兵使, 守令, 水使, 防禦使, 助戰將 등이 각 고을의 軍器들을 옮겨 城에 쌓아 두었다가 무너져 달아날 때는 물이나 불 속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도중에 버리기도 하여 兵器가 일체 없어지고 말았으며, 守令 등은 일본군이 닥치기도 전에 스스로 겁을 먹고 창고의 곡식을 불사르기도 하고 혹은 백성들이 훔쳐 먹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軍糧도 일체 없어지게 되었다고⁷⁶⁾ 한다. 이처럼 군량과 무기를 없애버리고 도망하였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컸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에 대해 조정에서도 일정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즉 일본군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李鎰을 巡邊使로 삼아 慶尙道로 내려가 中路를 차단하게 하고, 成應吉을 慶尙左道防禦使로 삼아 左道를 담당케 했으며, 趙徽을 慶尙右道防禦使로 삼아서 西路로 내려 보내고, 劉克良을 助戰將으로 삼아 竹嶺을 지키게 하고, 邊機를 助戰將으로 삼아 烏嶺을 지키게 하고, 前江界府使 邊應星을 慶州府尹으로 삼아 각기 防守에 임하게 했으나 인솔할 군사가 없어 처음부터 전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⁷⁷⁾ 慶尙道の 경우 임진왜란 초기에 다시 확립된 지휘체통을 살펴보면, 慶尙監司에 金晬, 慶尙右兵使에 柳崇仁, 慶尙左兵使에 朴晉, 慶尙右道 招諭使에 金誠一, 慶尙左道 安集使에 金功을 임명하였다. 이후 1592년 5월에 일본군의 점령으로 慶尙道가 사실상 분리되자 慶尙道를 左·右道로 분할하여 6월에 右道監司에 金晬, 左道監司에 金誠一을 임명했다.⁷⁸⁾ 그러자 右道の 士民들이 金誠一을 유입시켜 줄 것을 청함에 金晬를 漢城判尹으로 소환하고, 金誠一을 右道監司로 삼고, 左道監司에는 韓孝純을 임명하여 대처하게 하였다.⁷⁹⁾ 하지만 이것은 행정과 군사적 체계를 세운 것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상우도는 임진왜란 전시기 동안 계속해서 일본군이 집중배치되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경상우도였으며, 아울러 경상우도는 일본군의 거점으로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사실 일본은 豐臣秀吉이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나서 중앙집권적인 군사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는 太合檢地를 통해 토지 면적과 양곡 수확고를 조사하고, 양곡 총량을 병력 동원 기준으로 삼아 1만석 당 병력 동원 한도를 250명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진왜란시 동원된 일본군의 숫자는 17만명 내외였다. 한편 임진왜란시 3국의 군사수와 인구수

74) 柳成龍, <懲愆錄> 권 1 참조.

75) <선조실록> 권 22, 21년 9월 무자.

76) <선조실록> 권 27, 25년 6월 병진.

77)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 4월.

78) <선조실록> 권 26, 25년 5월 계미.

79) 李魯, <龍蛇日記> 참조.

<表 5> 임진왜란에 동원된 삼국의 군사수⁸⁰⁾

국 별	임진왜란	정유재란	계	병력수	각국 인구수
조선군	60,000	376,00	97,600	20만(극소수)	600~700만(1,400만)
명 군	74,000	117,000	191,000	50만(319만)	6,000만
일본군	197,700	141,000	339,100	33만	1,000~1400만

를 추정하면 위 <表 4>와 같다.

임진왜란시 삼국이 동원한 총 군사수는 100만 명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자연히 많은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인 조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의 미점령지에서는 피난민의 증가, 계속된 전투 수행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임진왜란시 조선에 침입한 일본군의 편성은⁸¹⁾ 제1군 小西行長 18,700명, 제2군 加藤清正 22,800명, 제3군 黒田長政 11,700명 등으로 수군을 합쳐 17만여 명이였다.

5월 2일 서울 점령 후 일본군은 8道を 分地하여 각 장수들로 하여금 점령지 내의 軍政을 실시하도록 했다. 慶尙道는 제7군의 毛利輝元이 맡았으며, 각 지역은 그의 휘하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점거하게 하였다. 이에 이들은 5월 10일 玄風, 18일 星州, 6월 12일에는 開寧을 지역의 거점으로 삼고서 洛東江 水路를 장악하여 후방으로부터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복잡한 그들 군대의 후환을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이 일본군의 전략 중 하나였다. 이때 慶尙左道에 배치되어 주보급로를 맡았던 군사는 釜山 8천, 梁山·東萊·密陽 1천 5백, 淸道·大丘 1천 5백명이었으며, 慶尙右道에는 昌寧 5천, 釜山 4천, 開寧 1만, 善山 1천 5백, 尙州 4천, 聞慶 2천명이였다.⁸²⁾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일본군의 서울 후퇴 이후에도 경상우도는 계속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일본군이 서울에서 후퇴한 결정적인 이유는 군량의 부족 때문이었다.⁸³⁾ 이러한 대표적인 전투가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보복을 가한 진주성 2차 전투였다. 진주성을 공격한 이후 일본군은 대부분 철수하고 경상도 지역에 倭城을 쌓아 잔류하였다. 이 때에도 경상도 지역은 축성이나 조세 수취 등으로 계속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일본군의 잔류 병력을 살펴보면, 1594년 초에 加藤清正의 군이 서생포에 6,400명, 毛利吉成의 군이 임랑포에 2,500명, 黒田長政의 군이 기장에 2,000명, 吉川廣家와 毛利元康의 군이 동래와 부산에 6,000명, 鍋島直茂의 군이 김해에 6,000명, 小早川秀包의 군이 가덕도에 2,800명, 脇坂安治의 군이 안골포에 700명, 小西行長の 군이 용천에 10,000명, 島津義弘의 군이 거제도에 8,000명으로 모두 43,000여 명이였다. 이후 1595년경에는 2만여 명만 부산 인근에 잔류하였다. 이처럼 일본군의 잔류 병력은 경상우도와 좌도의 해안지방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임진왜란 휴전중에도 경상우도의 지역은 계속해서 일본군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였다. 그것은 일본군이 남해안 지역에 주둔하면서 많은 노략질을 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명군의 주둔도 경상우도에 많은 피해를 안겨 주었다. 경상우도의 의병장 郭再祐 등은 계속된 명군의 경상우도 진주를 반대하였다.

한편 정유재란기에 일본군은 육군 115,000여 명과 수군 7,200여 명을 투입하였으며, 조선에 잔류하고 있던 2만여 명을 합하여 14만여 명의⁸⁴⁾ 군사를 지역별로 편성하였다. 정유재란기의 일본군 침

8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7 <壬辰戰亂史>에서 재인용. 괄호 안은 추정한 실제 인구수와 군사수.

81) <大日本古文書> 毛利家文書 3, 豊臣秀吉朱印狀, 高麗へ罷渡人數事.

82) 李炯錫, 1974 <壬辰倭亂史> 上 참조.

83) 일본군 장수들이 서울의 작전회의에서 결의하여 豊臣秀吉에게 보낸 작전계획에는 군량이 4월 11일까지밖에 없으며, 부산에서의 운송도 10일이나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라도·경상도의 군량 보급이 용이한 지역에 축성하여 장기전을 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84) <大日本古文書> 毛利家文書 3, 豊臣秀吉朱印狀, 高麗へ罷渡人數事.

입로는 경상우도와 전라도 지역에 집중되었다. 더욱이 정유재란은 영토 할양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시보다도 경상우도는 피해가 심하였지만, 의병운동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끝으로 일본군의 첫 침략지 慶尙道에서의 임진왜란 초기 민의 동향을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상우도에서는 觀察使 이하 守令과 將帥들이 모두 도주하여 자신의 보전만을 꾀하고 있었으니, 이런 상황에서 民心の 離反은 가속화되었으며 민들도 생존을 위해서 도망하기에 바빴다. 이와 같은 민의 離反은 급기야는 反官과 反逆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⁸⁵⁾ 이것은 난 초까지 있었던 勳戚政治의 수탈성과 지배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우도의 민들은 봉건정부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일본군에 투항하는 자들도 나타났으며, 의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은 난이 일어난 지 2개월 만에 있었던 金誠一의 馳啓에서도 알 수 있다.

본도의 순찰사는 상경하였고, 병사에게는 군사가 없고, 수사는 병영을 잃었다. 잔존한 고을이란 다만 거창, 안음, 함양, 산음, 단성, 진주, 사천, 곤양, 하동, 합천, 삼가 등 10여 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두 심산으로 들어가고 없어 空城만이 남게 되었으며, 비록 수령과 가장이 있다고 하여도 호령이 시행되지 않았고, 粗兵하여 응모하는 일도 무척이었으니, 불일내로 이 모든 고을이 적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⁸⁶⁾

라고 하였다. 즉 군사는 없고 민도 도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의 이반은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첫째, 反官 反逆 행위를 일삼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⁸⁷⁾ 임진왜란 전부터 민에게 가해진 각종의 부역과 형벌의 혹독함 때문에 전쟁 중에 그런 행위는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 민들은 왜인화하기도 하고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셋째, 반란을 일으켰다. 더욱이 민들이 거의 피난·도피하여 대부분의 고을이 비게 되었으며, 경상좌도로부터 유이민이 많아져 경상우도에서는 생활고가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시의 의병운동은 제한적이지만, 일차적으로 反官的·反侵略의 속성을 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관주도의 募兵과 항쟁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난 초기에 反官的인 민을 회유하여 이용했던 일본군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즉 관아나 민가를 노략질하고 불을 지른다면, 살륙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남녀를 잡아 본국에 송환하기도 하였고, 부녀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하는 등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하였다.⁸⁸⁾

결국 일본군의 만행은 민들에게 민족적 적개심과 의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생존을 위해서 숨어 살거나 유리하던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아울러 자신들의 생활터전인 농토는 삶의 젖줄인만큼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민의 저항 기운이 자연스럽게 反官的인 모습보다 반침략으로 전환되어 나갔다. 당시의 이러한 민의 동향은 경상우도 관찰사 金辟의 6월 狀啓에 잘 나타나 있다.⁸⁹⁾ 즉 일본군의 점령으로 가족과 생계를 잃게 되자, 민들이 일본군을 토벌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招諭使 金誠一의 馳啓에도 나타나 있다.

신은 지금 聖旨를 받들어 패망자를 초유하여 동리에 가서 모이도록 한즉, 父老儒生 유식자들은 모두

85)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宣祖가 慶尙道 사람들이 다 叛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朝廷에서 묻고 있음을 통해서 그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선조실록》 권 26, 25년 5월 임술).

86) 《선조실록》 권 27, 25년 6월 병진;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 8월.

87) 矢澤康祐, 1981 <林巨正의 反亂과 그 社會的背景> 《傳統時代의 民衆運動》 상, 풀빛
高承濟, 1980 <16世紀 賤民叛亂의 社會經濟的背景> 《學術院論文集》 19 참조.

88) 吳希文, 《須尾錄》 권 1 상권, 壬辰南行日錄 8월.

89) 《선조실록》 권 29, 25년 6월 병진.

말하기를, 백성들은 종래에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알고 스스로 분기할 것을 알고 있으나 도내에 장수가 없으니, 우리들이 나간들 누구에 의뢰하여 성공하겠는가 하여 신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⁹⁰⁾

라고 하였다. 이제 민들의 생존을 위한 자각이 반침략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반침략적인 의식을 가지고서도 분기하지 못했던 민들을 결집시켜 반침략 전쟁에 나서게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지방의 명망있는 재지사족 출신의 의병장들이었다. 이것이 임진왜란시 의병운동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였다.

경상우도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켰던 郭再祐를 위시하여 활발한 의병운동을 경상우도에서 전개한 金沔, 鄭仁弘 등의 입장은 민의 반침략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며, 또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목표에서 민들과 일치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병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IV. 맺 음 말

16세기 말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던 임진왜란은 조선, 명, 일본 3국 사이의 국제전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 판도와 역정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임진왜란은 전쟁터였던 조선에 참혹한 피해를 입혔지만, 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병운동으로 극복될 수 있었다. 임진왜란시 전개된 의병운동은 16세기 사회의 내적인 활동이었다. 때문에 임진왜란시 전개된 의병운동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경상우도의 의병운동도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발생 전후의 경상우도의 군사적 상황과 전략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진왜란 이전 경상우도에서도 16세기 조선사회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군사제도에서는 군사수의 부족으로 布納化와 代役制가 나타났다. 특히 절대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軍額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된 布納化가 番價의 상승을 초래하여 오히려 민의 도망과 유리를 촉진시켰다. 이로 인하여 番價는 높아만 갔으며, 군역의 허수화가 문제되었다. 특히 경상우도에서는 수군의 역이 많아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한편 軍政의 면에서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졌던 경상우도의 鎭管體制는 군사수의 부족으로 制勝方略體制로 바뀌었다. 軍額의 부족으로 나타난 制勝方略體制는 국지전에서는 유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전면전인 임진왜란에서는 불리한 전략이었으므로 임진왜란 직전에 폐지하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이러한 염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발생하였다.

둘째, 임진왜란시 慶尙右道の 전략적 위치는 일본군이 전라도 침략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었으며, 전쟁터가 북쪽으로 확대되자 일본군이 후방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전략은 경상우도를 거쳐 지체없이 곡창 호남으로 진출하여 군량을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경상우도의 의병과 남해안 李舜臣의 활약으로 좌절되었다. 이에 일본군과 조선군 사이의 전쟁이 경상우도의 요충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경상우도 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호남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군의 시도는 낙동강의 여러 津으로 분산되었다. 경상우도의 3대 의병장인 郭再祐, 金沔, 鄭仁弘은 낙동강 지역의 사수에 전력하였다. 정암진전투, 기강전투, 현풍전투, 무계전투, 성주전투, 개령전투 등은 대표적인 낙동강 사수를 위한 전투였다. 경상우도 의병의 활

90) <선조실록> 권 29, 25년 6월 병진.

金 康 植

약은 전쟁사적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시킨 점과 병력 분산을 유발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낙동강 수로를 확보함으로써 일본군의 군량 운송로를 장악하였다는 점이다. 경상우도의 의병장 郭再祐의 木杖 설치나 金沔의 일본군의 노획물 탈취는 단적인 예이다. 이처럼 의병장들의 전투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낙동강 유역에 분산되어 해당 지역을 사수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경상우도는 임진왜란 초기의 전쟁터였다는 점 외에 휴전기에도 계속해서 일본군이 계속 주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되었다. 정유재란시에도 경상우도는 일본군의 주요 침략로였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었다.

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의 민들은 반군화되거나, 대부분 도망하여 생존을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만행으로 결국 외침에 대한 반침략이 우선시되면서 의병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것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당연한 귀결이었다.